

유휴시설시장, 조두순 부인 주소 이전에 따른 대책 논의

안산단원서장·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장과 긴급 간담회

유휴시설 시장 안산지장은 26일 다음달 출소하는 조두순의 부인이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김대수 안산단원경찰서장, 정성수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장을 만나 긴급히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안산단원경찰서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들은 기존에 추진하기로 한 시민안전 대책을 주소 이전 이후에도 철저히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유휴시설 시장은 경찰과 법무부에 주소지 이전에 따른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하며 동원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대수 안산단원서장은 "주민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경찰력을 총 동원해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수 안산지소장도 "조두순을 24시간 밀착 감독하는 전담보호관찰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진행해 주민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휴시설 시장은 "기존에 추진하던 각종 안전대책이 주소지 이전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안전한 안산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이철우 도지사, 2021년 국비 예산 확보에 마지막 안간힘

11.25 국회 방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예결위 간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25일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전격 방문했다. 이른 아침부터 국회를 찾은 이 지사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민의힘 예결위원장,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장 등 여야 핵심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경북도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초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문경-김천 내륙철도 건설, 구미 스마트 산단 등 지역의 핵심현안 반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사업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 총력을 집중했다. 특히 이 지사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경북에 지역 현안들이 많지만, 영일만 횡단대교는 지역의 오랜 숙원이고 특히 포항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 요청했으며 주호영 원내대표도 "잘 알고 있다. 끝까지 노력해, 영일만 횡단대교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영일만 횡단대교는 포항시 남구와 북구를 잇는 해상교량으로 총사업비 1조 6,189억원을 투입해 동해 고속도로의 유일한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며 본 사업이 준공되면 경북은 물론 부산·울산과 강원, 수도권을 연결해 국가경제 활성화와 동해안 관광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2008년에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지정되어 추진되어 왔으나, 영일만 횡단구간은 반복히 사업계획에서 제외됐다.

정동호기자

지역항공사 에어부산 지원 위한 부산시·지역주주 협력관계 재확인

부산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지역항공사 에어부산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지역주주 간담회를 오늘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석훈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부산시민들의 애정과 성원 속에 성장한 에어부산이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 지역주주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으며 지역주주들은 에어부산 유상증자에 적극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금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매출이 감소한 국내 항공사들은 자본금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를 실시 중인 에어부산 역시 12월 중 3,000만 주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유상증자 성공 여부가 에어부산이 향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점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 지역주주는 "일부 부산 기업인들이 에어부산은 현재 가치가 크게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장 가능성을 보고 에어부산에 대한 지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며 "에어부산의 기존주주들도 애정이 많은 만큼, 에어부산의 유상증자는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에어부산에 출자할 당시 근거 법령의 개정으로 유상증자에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에어부산의 주요주주로서 추가 출자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한편 현재 대한항공·아시아 통합과 관련한 자회사 LCC 통합에 대해서는 지역주주 대부분이 "에어부산 중심의 통합 LCC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정부에 적극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향후 LCC 분리매각 등이 추진될 경우에는 지역주주 공동으로 인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뜻

남경영기자

[칼럼] 옛날 아주 오랜 옛날이야기 2

꿈금이 생각하니 태어난 지 몇 일 지나지도 않아 시름시름 앓다 먼저 하늘나라로 간 첫 아들 김주국이 지금의 이 꼴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싶기도 하고 지금 와서 죄 없는 마누라 들볶는다고 달랠지언 없었다. 횡간에 담배도 피워보고 자식이 웬수라 옆집 자식들과 비교도 해봤지만 무슨 소용일까 다 술김에 사고친 자신을 한탄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집안은 부패 쓰레기가 도처에 넘쳐나고 닳고 닳고 싸움질만 하더니 눈치는 있는지 한 번씩 집중단속이라는 오두방정을 떠는 통에 뿔이라는 잡초대신 농약을 범범으로 뿌리니 멸절된 농작물까지 죽어 자빠지는 형국이다. 오죽하면 온 동네에 들도 보도 못한 소문이 날까. 어쨌거나 고민에 빠진 우리의 김서방, 매과 할미가 떠돌아대는 통에 옆집 최미국 대감도 뒷집 강중국 대감이나 아랫집 이일본 대감 집까지 소문이나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다. 횡간에 다시 저자거리로 나가 해결책을 찾던 중 눈에 번쩍 띄는 문패가 있었으니 바로 다음정이었다. 주막을 들어서니 곱게 단장한 여인이네가 운영하는 자그마한 규모에 정리정돈이 말끔히 된 집안 구석구석이 김서방의 마음을 움직였다. 희망선반 위에는 꿈 복숭아가 얹혀있었고 부엌의 선반에는 정직가루와 성실간장이 차곡차곡 줄이어 놓여있었다. 마당의 장독대에는 질서고추장과 정의된장이 보기도 해도 먹음직했다. 더구나 다음정 주모의 호패에는 차세대라는 이름이 적혀있었는데 아직 나이로 보나 외모로 보나 열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던가. 집안은 엉망이고 동네 소문은 더럽게 나고 아무 희망이 없었던 김서방의 뇌리에 스치는 뭔가가 있었다. 그 때 한번뿐인 인생인데 새살림을 차려 더 이상은 마누라 하고 같이 살 의미나 이유가 없는 것이라 여긴 김서방은 다음정의 차세대 주모에게 모든 걸 올인하게 된다. 당연히 마누라 등 살이나 여자의 육감에 아슬아슬한 순간이 시도 때도 없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젠 늙어 근처에도 가지 싫지만 단 년한테 눈독들이면 이판사판이라며 절대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 한해 두해 세월이 가면서 마냥 어리게 보이던 다음정 주모도 제법 성숙한 여인이네가 되고 이제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야겠다는 각오가 서던 어느 날, 그날도 김 서방은 마누라와 등 돌리고 잠을 청하다 더 이상 참지 못했다가는 차 주모가 탄 놈한테 가벼리지도 모른다 하는 걱정이 들었고 자다 깬 김 서방은 한결에 다음정으로 달려갔다.

이 지금은 어려우나 언젠가 제가 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밟고 비오니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도록 굶어살피 주시옵소서, 부족한 제가 서방님의 자식을 낳아 서로 싸우지 않고 형제간에 화기에애하여 집안의 부패를 청소하고 구석까지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부지런한 아들을 생산하도록 신이시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귀하신 우리 국민서방님과 우리 후손들이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을 믿사옵니다. 그토록 그리던 차세대 주모의 바람이 자신과의 부부인연이 아니라 꿈인가 생신가 용기로 인기척을 내어 차세대 주모에게 그 바람이 진실이냐고 물었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살포시 가슴에 묻혀왔다. 이때 차세대 주모의 한마디가 김 서방의 두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뿜구게 했으니 그 내용이 이러했다. 오래 전 서방님 집안에 김범무와 김종창이 다름이 심하던 시절, 서방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하니 제가 달리 도와드릴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어리나 훗날 언젠가는 서방님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둘 낳아드리고 지금 정성으로 되시어 김국민 서방님이 왕인 세상을 만들어드리려 했습니다. 그 날 밤, 달은 기울고 소쩍새는 우는데 하늘거린 듯 불꽃이 꺼지자 어둠속의 여인의 웃는 모습이 아름답다했던가 천둥번개 대신 별빛이 초롱했고 달마저 부끄러운지 구름속에 숨어버렸다. 몇 번인가 땀이 비 오듯 하고 새로 태어난 여인의 정갈한 숨소리에 어슴푸레 여명이 밝아왔다.

이제 새날인가. 그렇게 새 장가를 간지 한 해 두해 해가 지난 김 서방의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일 날이 없었다. 큰아들 김 범무와 작은 아들 김 총장은 서로 우애 있게 지내며 집안의 대소사는 물론 이웃집 일까지 거드는 정성을 보였다. 당연히 김국민 서방은 마음 편하고 넉넉한 살림에 만고걱정이 없게 됐다. 그리 말 많고 흉만 보던 주변 대감대들도 마냥 부러워만 했다 한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그랬다는 이야기다. 같은 물이라도 소가마시면 우유가,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했고 같은 같이라도 강도가 들면 흉기요 요리사가 들면 귀한도구가 된다. 같은 펜이라도 누가 드느냐에 따라 칼보다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기에 기자가 되길 수 천 번도 더 새겼다. 같은 정치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민을 지키라고 쥐어 준 총으로 국민을 쏘게 하는 게 권력이라면 그 권력, 국민의 이름으로 회수해야한다. 국민을 위해 쓰라고 모아준 세금으로 정치인들의 생색용 분탕질을 한다면 그 돈 제대로 밝혀서 국민에게 날날이 보고해야 한다.

언제까지 국민을 호구로 아는지 두고 볼 일이다.

덕암김국석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위원회, 평화부지사 임시사무실 방문해 격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을 비롯해 이종인 의원, 오지혜 의원은 26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몽골텐트에서 임시사무실을 설치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와 만남을 가졌다.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는 의미로 개성공단이 내려다보이는 도라산 전망대에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설치하려 했으나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기 설치가 거부됐다.이에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임시사무실을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마련하고 통일대교 남단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현장 집무실을 방문해 이 부지사를 응원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개성공단 재개

선언 추진 등 경색된 남북관계에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도라산 전망대에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설치할 하려는 것인데 유엔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애석하다”며 “개성공단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도 의회도 앞장서 돕겠다”고 말했다.

이종인 의원은 “개성공단 재개 선언 촉구를 위한 일인데 유엔사의 허락 없이 집무실을 설치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1인 시위 중인 이 평화부지사에게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지혜 의원은 “도라산전망대 집무실 설치하는 평화정착을 위한 경기도의 정당한 행위이다”며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애쓰시는 이 평화부지사님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 개성공단 정상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한다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지난 10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 집무실을 설치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향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이재강 평화부지사의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의미에서 26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 마련된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방문했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강 부지사의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비무장지대 내 도라산 전망대에 평화부지사 집무실 설치를 불허한 유엔사에 대해 규탄하며 조속한 집부무실 설치 승인을 촉구했다.박근혜 정권의 오판으로 2016년 2월에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4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그동안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남과 북 각계각층의 노력이 있었지만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개성공단 재개는 요원하기만 하다.이런 상황에서 평화부지사의 대응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또한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개성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호소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벌써부터 각계각층에서 평화부지사에게 대한 지지 및 격려 방

이성욱기자

### 용인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용인시의회는 지난 25일 본회의장에서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이날 윤원규, 유진선, 윤재영, 김상수, 이미진, 전자영, 박남숙, 이재남, 김운봉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으며 이은경, 맹지선 의원 등 2명의 의원은 서면으로 질의를 했다.윤원규 의원은 전동킴보드 안전 문제와 시민체육공원 활용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윤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킴보드의 과속주행으로 인해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이용자의 탑승 수칙 미준수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특히 공유 개인형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업체 및 사용자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제정되기 전 세부적인 지침이나 매뉴얼을 만드는 등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어 시민체육공원의 시설운영비로 매년 20~30여원의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룸만 미르스타 다음으로 변경했는지 이에 대한 활용방안, 향후 보조구장 건설과 2단계 사업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SK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인해 용인축구센터가 이전이냐 해체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임을 강조하고 용인축구센터의 향후 방안과 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유진선 의원은 고매동 동원물류센터 인허가 특혜 의혹, 쪼개기 교통영양평가, 기흥구 난개발 등에 대해 질문했다.유 의원은 고매동에 위치한 동원물류센터 설립을 위해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2014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허가를 조건부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중로 3-60호는 연장, 기흥소로 2-142호는 축소 변경되어 시설 결정이 고시됐는데, 이같은 결정은 특혜라 보여진다고 주장했다.이어 2024년까지 임시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차량이 진출입하는 곳을 향후 도로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해 동원물류센터가 완공되면 사용하려고 하는데 경기도 소유의 토지를 사의를 추구하는 동원물류센터가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23번 국지도 고가 하부에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또한, 진입도로도 없는 건축계획을 제출한 곳은 놀람게도 청원마을 희스산단 인허가 과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사람이 당시 대표로 있었던 건축사무소였으며 이 사람은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최만식기자

### 이수~과천 복합도로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조건부 통과

#### 도시안전건설위, 시민부담 완화 위해 통행료 최소화 방안 주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수~과천 복합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통행료 최소화 방안 등 일부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이 날 시 안전총괄실을 상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에서 본 사업구간이 과천시 구간도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금과 관련해 과천시와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제3차 공고에서 기준통행료를 1,500원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시민의 재정부담을 덜도록 통행료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하면서 하나의 터널에 도로와 빗물저류배수시설이 공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복합터널 형태로 건설되는 만큼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가 이날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세부 내용을 보면, 첫째, 사업 구

간 중 과천시계 구간은 과천시와 재정부담에 관해 협의할 것, 둘째, 시·중점부 교통서비스 수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행료 최소화를 도모할 것, 셋째, 국내 최초의 복합터널인 만큼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것, 넷째, 상기 협의와 검토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등이다.

‘이수~과천 복합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되는 사당 및 이수 지역의 침수문제를 해소하고 동작대로 및 과천대로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부터 과천시 과천동까지 5.4km의 도로터널과 3.8km의 빗물저류배수터널이 병렬식과 복합식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 복합터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2017년에 최초 제안 받았으며 공공투자관리센터와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쳐 추정 건설사업비는 4,653억원, 기준통행료는 1,500원, 건설보조금 최대 1,629억원에 해당한다.

금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 회의를 통과할 경우 서울시는 제3차 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광수기자



### 김명숙 충남도의원 “농업보조금 관리 손놓고 있을 건가”

#### 수년째 개선되지 않는 중복지원, 타시도 거주·법규정 위반 미지급 실태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은 26일 제32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수년째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농업보조금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대농가 또는 직계 가족 위주의 중복지원을 막고 영농조합법인 이사 중 타시도 거주자는 농업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3년째 외쳤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업보조금 지원범위 중 임원이 타시도 거주자 업체에 지원한 내역은 79개 업체, 총 266억 9000만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이들 일부업체 중 A업체는 도내 농공단지에서 거주하면서 2015년, 2018년, 2019년에 총 26억여 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대표 주소지만 충남으로 돼 있었고 이사들은 대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A업체는 환경오염관련 법률을 위반해 과태료 2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충남도에서는 몇 개월 뒤 11억 9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2년 뒤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했다”며 허술하고 불공

김원호기자



### TOPPER

기쁜날 감동을 두배로 케이크토퍼  
기념일 축하, 여행 감성사진, 기업홍보, 이벤트에 빠질 수 없는 케이크토퍼  
토퍼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STICKER

네임스티커&각종 홍보판촉 스티커

전제품이 특수 방수 코팅 되어있어 컵이나 식기류에 붙여도 번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이용품은 물론 각종 생활용품, 홍보물에도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디자인다해  
TEL:031.984.8245

# 서울시 '아리수'와 겨울방학 함께할 대학생 아르바이트 100명 모집

코로나19로 대외활동 어려워진 요즘 사회경험 기회 부여, 방역수칙 철저히 운영할 것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서울의 수도물 아리수의 생산부터 서비스까지 다양한 과정을 체험하고 사회경험을 쌓을 대학생 아르바이트 100명을 자체 모

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의 2021년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들은 본부, 8개 수도사업소, 6개 아리수정수센터, 서울물연구원 등에

배치된다.여기서 상수도 인공지능 상담로봇 구축, 아리수정수센터 중앙제어실 운영자료 및 음수대 통계자료 정리 등 수도물의 생산·공급·서비스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근무기간은 내년 1월 4일부터 1월 29일까지 총 4주간이며 1일 5시간 근무에 일 48,600원을 받는다.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12월 4일 오후 5시까지 5일간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2월 10일에는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한 1차 합격자를 발표하고 1차 합격자 중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을 거쳐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같은 기간 진행되는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중복해서 근무할 수 없다.지원은 서울시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 또는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타 지역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이면 가능하며 대학원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채용하는 전체 인원 100명 중 30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록장애인, 3자녀 이상 가정,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다른 국가보훈대상자로 특별선발한다. 채용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백 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대외활동이 어려워진 요즘, 사회경험을 쌓고 의미 있는 겨울방학을 보내고자하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며 또한 "학생과 직원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용산구, 효창원 의열사 '8위 선열' 송모제 개최

올해부터 '8위선열'로 명명...안중근 의사까지 포함시켜

서울 용산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 75주년을 맞아 지난 23일 효창공원 의열사에서 '8위 선열 송모제'를 개최했다. 8위 선열 송모제는 효창공원에 묻힌 7위 애국선열과 안중근 의사의 넋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합설 제례다. 효창원7위선열기념사업회가 행사를 10년째 주관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명칭을 '8위 선열' 송모제로 바꾼 것. 구 관계자는 "지난해 말 의열사에 안중근 의사 영정, 위패를 함께 모셨다"며 "앞으로는 8위 선열 송모제로 격상, 안 의사의 넋을 함께 기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송모제는 전패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망요례 순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성장현 용산구청장, 이종래 효창원7위선열기념

사업회장 등 40명이 자리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임시정부 한국 75주년을 맞아 효창원에서 뜻깊은 행사를 치렀다"며 "우리 민족은 어려울수록 더 진가를 발휘한다. 오늘의 위기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효창공원은 문묘세자를 비롯한 조선왕실의 무덤이 있던 곳이다. 일제 강점기 공원 시설로 격하됐으며 해방 후 백범 선생이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3의사 유해와 임정 요인 이동녕, 조성환, 차리석의 유해를 이곳에 모셨다.안중근 의사 허묘도 함께 설치했다. 김구 선생 또한 1949년 우익 테러로 살해 돼 효창공원에 묻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1989년 효창공원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했다. 이듬해 준공된 의열사는 8위 선열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구는 지난 2016년부터 의열사를 일반에 상시 개방하고 있다.

최만식기자

# 비투비 포유, 성동구에 마스크 5만장 기부

서울 성동구는 최근 신곡 'Show Your Love'를 발표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 비투비의 유닛 그룹 '비투비 포유'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 5만 장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지난 23일 성동구청 7층 전략회의실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비투비 포유가 함께한 가운데 마스크 기부 전달식이 있었다. 지역 내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큐브엔터테인먼트 소속의 비투비 포유는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나눔실천의 일환으로 이번 마스크 기부에 나섰다. 비투비 포유의 리더 서은광씨는 "성동구에 살고 있는데 얼마 전 집으로 음원의 메시지와 함께 마스크 다섯장이 와 있어 생각지도 못한 큰 감동을 받았다"며 "그런 감동을 함께 실천하고 싶어 성동구와 의미 있

는 나눔에 동참하게 됐으며 하루라도 빨리 이 힘든 코로나19가 끝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구는 이날 전달된 마스크를 12월 중 필수노동자 6,200여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성동구는 큐브엔터테인먼트와 지난 6월 지역 내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친 구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인공달 프로젝트', 도시재생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많은 이들의 마음이 모여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며 "함께해준 비투비 포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성동구는 코로나19로 힘든 이웃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응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 운동회 대신 뮤지컬...마포구, '청소년 뮤지컬페스티벌' 무관중 공연 개최

마포구가 지역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제5회 마포구 청소년 뮤지컬페스티벌 '오늘은 운동회' 행사를 오는 28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반에 공유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년 차인 마포구 청소년뮤지컬단은 지역의 청소년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뮤지컬 예술교육을 받으며 끼와 열정을 발산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포구 문화예술 사업의 하나다.이번 행사는 세종문화회관의 전문 연출진이 직접 연출과 교육에 참여해 다채로운 음악과 무대를 기획했다.공연은 신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절차에 따라 지난 14일 무관중 공연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촬영분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한 시간 동안 구립망원청소년문화센터 유튜브 페이지에서 관람할 수 있다.한편 이번 뮤지컬페스티벌은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2020 세종 우리동네 프로젝트'에 참여한 마포 서부지역 청소년뮤지컬단과 지난해 구가 신설한 '마포 동부지역 청소년뮤지컬단' 등 총

30여명의 청소년이 함께 연합공연으로 진행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뮤지컬 공연은 청소년들이 뜻깊은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청소년들이 운동회도 하지 못했다. 대신 함께 땀 흘리며 준비한 이번 뮤지컬 공연이 청소년들에게 운동회와 같은 기쁜 추억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기존 서부지역 뮤지컬단의 안정적 운영을 바탕으로 지난해 마포구가 새롭게 신설한 '마포 동부지역 청소년뮤지컬단'은 아현동, 공덕동, 도화동, 용강동, 대흥동, 영리동, 노고산동, 신수동 등 마포 동부지역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청소년들의 끼와 적성을 살리고 예술성과 협동심 등 인격 형성에도 좋은 청소년뮤지컬단 운영을 통해 이에 참여중인 청소년들이 보다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며 "청소년의 재능과 꿈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 노원구, 당신의 작명 센스를 보여줄 기회 '경춘선숲길 갤러리'명칭공모

화랑대 철도공원 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43평 규모의 신규 갤러리 조성

서울 노원구가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경춘선숲길공원 내 소규모 갤러리를 설치한다고 밝혔다.화랑대 철도공원 내에 조성하는 경춘선숲길 갤러리는 144㎡ 규모로 컨테이너 4량을 활용 북예원과 기차길 사이공터에 배치한다. 갤러리는 전시공간, 체험공간, 아트숍 등으로 꾸며질 계획이며 내년 2월 완공될 예정이다.구는 신규갤러리 사업 추진을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공간에 맞는 참신하고 특색있는 이름을 선정하기 위한 갤러리 명칭 공모전을 실시한다. 12.4일까지 진행되는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최우수상 1명에게는 10만원, 참가상 10명에게는 각각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결과발표는 12월에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한다. 응모는 노원구청 홈페이지에서 공

모제안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담당자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한편 구는 2017년부터 구화랑대역사 인근 부근 40,293㎡ 부지를 서울의 대표적인 철도관광 명소로 탈바꿈하기 위한 경춘선 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8년에는 옛 화랑대역을 리모델링한 화랑대역사 전시관을 개관했다.2019년에는 구 무궁화호 객차 6량과 증기기관차 미카기관차 등을 운송·배치하고 구비 약10억원을 투입 약 400m 구간에 17종의 야간 조형물을 설치해 서울의 최초로 야간 불빛정원을 조성했다.현재는 기차카페, 철도와시간박물관, 철도미니어처관 조성을 추진 중이다.오승록 구청장은 "주민들이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할 신규갤러리의 명칭 공모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며 "경춘선 숲길 화랑대철도공원이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체험·학습,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경북도청,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 위해 전 직원 1/3범위 내 재택근무 시행

이철우 도지사, 공직자의 사명감으로 솔선수범하며 코로나19 극복 해내야.

경상북도는 지난 11월 24일부터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 방안과 대국민 코로나19 방역 동참을 위해 직원 1/3범위 내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한다.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모임·행사·회식에서 발생함에 따라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력하게 준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공공부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북부관리 지침 적용에 따른 것

이다.경북도의 이번 재택근무 시행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5차 추진으로써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 각 2주간 시행한 바 있으며 재택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이 자택에서 업무를 공백 없이 수행하기 위해 정부원격근무서비스에 가입하는 등 재택근무를 위한 업무환경 또한 철저히 준비되어 있다.재택근무자는 자택에서 GVPN을 통해 사무실 근무자와 같은 시간에 근무를 해야 하며 부서장은 재택근무자가 임의로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거나 업무에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도청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또한 경북도청은 청사 출입문 3개소에 출입자 관리를 위한 근무인력 5명을 배치하고 열화상감지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면서 출입자의 증상 여부 확인과 회의장, 사무실, 통풍로 등 청사 내에 대해 특별방역, 정기방역, 자체방역 등으로 구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을 하면서 배달음식을 비롯한 청사 내 반입 물품 등에 대해도 물품 보관소를 마련해 해당 직원들이 직접 수령 후 반입 조치 하는 등 대면 접촉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다.아울러 직원들의 구내식당 이용에 있어서도 점심시간을 3개조로 나누어 식사 운영함으로써 직원 간 밀집도를 낮

추고 배식시 거리두기도 철저히 시행토록 지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24 코로나19 생활방역 추진상황 점검 영상회의를 통해 도청 실국 및 시·군별 코로나19 생활방역 추진상황 전반에 대해 점검했으며 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경북이 지난 2~3월에 매를 많이 맞았다. 그때 상황이 다시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가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경북의 선비정신, 호국정신으로 도민 행복을 위해 모범적으로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정동호기자





# 다중이용시설 2단계 방역수칙 집중 점검

가평군이 3차 대유행이 예상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에 나선다. 25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 213개소, 노래연습장 31개소, PC방 20개소, 민간체육시설 72개소 등 다중이용시설 336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단, 공공체육시설 39개소는 이달 29일까지 휴장에 들어감에 따라 이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이뤄진다.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으로는 종교시설은 정교예배 등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또 노래연습장과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PC방은 음식취급 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로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해진다.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은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특히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플라타, 헌

팅포차는 집합금지가 내려지며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방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종교시설은 정교예배 등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24일 현재 가평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71명으로 지역발생이 66명, 해외입국 사례가 5명이다. 최근 1주일간 주민, 학생, 공무원 등 신규 확진자가 20명 넘게 추가 발생했다.

군 관계자는 “더 이상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자가 나오지 않도록 불편하더라도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불필요한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하고 상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생활방역수칙을 실천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영근기자

# 창녕군, 농지 불법 매립 행위 집중 단속

창녕군은 관내 환경오염 문제 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무분별한 불법 성토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에서 농한기를 틈타 건설폐기물, 무기성오니, 건축현장 터파기공사의 불량토사 등 경작에 적합하지 않은 토사를 매립하거나 인근 농지보다 높게 성토해 비가 오면 유실 및 배수에 지장을 주고 있는 등 우량농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한기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

한 개량 행위를 제외하고 불법 성토나 폐기물 매립이 이뤄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농지법 등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토지주·행위자를 모두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며 또한 현수막 게시, 마을 방송 등을 통한 대대적인 주민홍보를 위한 성토행위 근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개발업자 및 중간 연락업체가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주장해 선량한 농업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반드시 성

토 전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관계공무원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가지 않게 성토해야 한다.

한정우 군수는 “불법적인 농지매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청정 자연의 도시 창녕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군민이 예방차원에서 감시하고 신고해주시기를 바라며 군 또한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 김포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시민 불편 풀었다.

김포시가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 등을 개선한 결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도 높은 규제 개선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포시는 올해 64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 했으며 29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정을 개정하는 등 시민이 불편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중앙부처 건의 결과 식품영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냈는데,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변경신고 시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기존에는 영업신고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나 변경신고 사유 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내용과 조리사 면허증 발급 시 사진 제출 장수의 무 규정을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사진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소관부처로부터 내년도 개정 계획 예정이라는 수용 통보를 받았다. 자치법규 개선 사례로는 주민행정 분야에서 통·리·장 후보자 지원 자격과 관련해 봉사할

동과 수상내역 경력 기간, 추천인 서명 인원 등 기준을 완화했고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에 등록된 외국인의 위원 참여를 확대했으며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에 참석 자격인 만 19세 이상 규정을 삭제했다. 건축 도시 분야에서는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완화와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야영장을 신설했으며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에 공작물에 대한 중량물의 적재하중을 기존 5톤에서 10톤으로 완화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농림 분야에서는 농기계 임차인 자격을 관내 주소지 및 농경지로 제한하던 것을 관내 농경지 기준으로 임차인 자격을 완화해 관외 주소지가 있어도 농경지가 관내인 경우 누구나 농기계를 임차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상·하수도 분야에서는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 신청대상을 기존 '세대'에서 상가도 가능한 '세대 또는 호'로 확대하고 설치대상 건물 중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규모 기준을 삭제했으며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정한 공공하수도

점용 시설 등 설치 완료에 따른 준공검사 제출 의무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에 다자녀가정, 의사상자·국군포로·병역명분가 예우대상자 등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는 필요한 규제로 규제 완화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규제정책을 추진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7월 공장유도화 지역에서 골재사업장 불승인으로 주민의 생명을 지켜낸 내용으로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불편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는 반드시 개선할 것이며 내년부터는 온라인·비대면의 포스트 코로나 대비 맞춤형 규제합리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근기자

# 양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양주시는 오는 27일까지 양주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장애인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계도·홍보

중심으로 진행, 위반유형과 현장상황 등을 고려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대상은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는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을 비롯해 주차관련 민원과 주차위반이 많은 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불법주차, 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 다.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10

만원, 주차방해 시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 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전용 공간임을 알리고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애인의 이동 편의 향상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근기자

# 윤화섭 시장, 김창룡 경찰청장과 치안상황 합동점검 실시

윤화섭 시장 “경찰과 적극 협력해 시민 안심하는 환경조성에 최선”

윤화섭 안산시장은 25일 김창룡 경찰청장과 함께 관내 치안상황과 방법 CCTV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시 도시정보센터에서 실시된 이날 합동점검에는 윤화섭 안산시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을 비롯해 최해영 경기남부청장, 강황수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김태수

안산단원경찰서장, 심현규 안산상록경찰서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시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를 둘러보며 CCTV 신규 설치현황과 위치추적 및 안면인식 등 통합관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운영 실태를 직접 모니터링했다.

윤화섭 시장은 점검에 앞서 시가 성폭력 범죄 예방 및 조주순 출소와 관련해 중앙정부 등에 건의한 보호수용법 제정, 성폭력 예방 병정부 TF팀 구성, 성폭력 제로 시범도시

조성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시가 추진하는 순찰강화 대책, CCTV 감시체계 강화, 안심길 조성 등 역점사업의 경과를 공유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시민이 느끼는 불안감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 청송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청송군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합동 점검반은 소노벨 청송과 진보하나마트, 고속도로 청송휴게소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불법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을 비치하며 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쳤으며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

지 미부차 차량의 주차,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 행위 등과 함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점검했다. 청송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 되고 장애인 편의증진과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인용기자

# 당진시,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실시

당진시가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당진교육지원청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24개의 학교급식소와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식재료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학생들에게 개인위생 및 손씻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수칙에 대해 홍보와 교육도 병행한다.

특히 그간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행위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미비한 부분을 집중 점검하고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식중독발생 우려가 높은 식재료 등에 대해 수거·검사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김재란 보건소 위생지도팀장은 “이번에 실시되는 합동점검을 통해 식중독을 사전에 차단하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홍보·교육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원호기자

## 역사가 살아 숨쉬는 관광·문화도시

## 그 품격을 더욱 높혀 나가겠습니다



# 광명시, 광명형 그린뉴딜 우수사례 발표

수도권 광역, 기초 지자체에게 광명형 그린뉴딜 정책 공유하는 시간 가져



광명시는 지난 24일 인천미추홀구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균형뉴딜 수도권 포럼에서 광명시의 그린뉴딜 추진전략 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수도권 광역 3개 단체장은 영상으로 참여하는 등 참석자를 최소화했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3곳과 기초 중 선도적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성동구가 사례를 발표했다. 지역균형뉴딜포럼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난 10월부터 전국을 7개 권역으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지역균형뉴딜 수도권 포럼은 서울, 인천, 경기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지역주도로 추진해 지역의 경제·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권역별 초광역협력사업과 지역균형뉴딜의 추진방향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광명시 그린뉴딜 정책은 2030 지역에너지 계획에 근거하고 있다. 광명시는 전국 최초로 에너지계획을 시민 참여로 수립했으며

2018년 기후에너지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에너지계획을 실천해나가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에너지 계획 수립 시 자문참여단으로 함께 했으며 민선7기 시장취임 후 계획이행을 바로 실행한 그린뉴딜 실천 시장이다. 광명시는 이번 포럼에서 광명형 그린뉴딜 정책이라는 주제로 그간 그린뉴딜의 선도적인 지자체로서의 주요 사업과 추진 노하우를 수도권 지자체들에게 소개 하고 질의응답으로 마무리했다. 기후위기 극복을 선도하는 광명시는 지난 6월 광명형 그린뉴딜을 발표한 후, 광명시민에

너지협동조합 설립 지원, 기후에너지센터 설립, 시민햇빛발전소 운영, 태양광 주택 지원, 기후위기에 따른 시민교육, 강사양성교육, 시민참여 에너지 공동체 형성 및 도심 속 재생에너지 등 생산으로 지역에너지 전환 추진 등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광명형 뉴딜 통합 용역을 추진해 그린뉴딜 정책,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체계를 구체화해 그린뉴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순희/기자

# 안양시, 2021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최대호 시장, 어르신들 보람 느끼고 사회 공헌할 수 있는 기회 될 것



안양시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내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주 대상은 기초연금을 수급 받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시는 1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천723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22억원에 3천619명이 참여한 금년도 노인일자리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61개 사업으로 독거노인 가정방문과 공공시설 봉사 등이 주류인 공익형에 2천9백 명, 취약계층 지원분야인 사회서비스형에 280명, 소규모 매장 또는 전문직종사업단 공영 운영분야인 시장형에 3백 명을 각각 선발한다.

또한 구인구직과 취업연계 등 노인취업알선에 백 명을 그리고

동화구연과 효행인성지도 등을 알리는 자체사업에 143명을 투입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려는 시민은 기간 안에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안양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만안·동안지회, 경기실버포럼, 만안·동안구청을 비롯한 3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어르신들이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사회에 다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으며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안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성윤/기자

# 임병택 시장, "하나의 시흥으로 위기 극복, 미래 개척"

25일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



임병택 시흥시장은 25일 제283회 시흥시의회 시정연설에서 "시흥은 참여하는 시민의 선한 연대의 힘이 있었기에 수많은 위기를 극복했고 지금의 시흥을 만들었다"며 "2021년에도 시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내년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어 "2021년에도 민생 회복과 미래 개척을 목표로 과감한 재정 확대를 통한 새로운 시흥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시흥시가 올해 50만 대도시 진입을 앞두고 있고 K-골든코스트 구축 등 민선7기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시점여서 민생과 미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는 목표다. 임 시장은 "그러나 올해 시정부는 코로나 19 대응에 1천억원 이상의 자체 재원을 소모했고 써야 할 곳이 더욱 늘어나고 있어 추가 재원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며 "시의회와 그간의 힘을 바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시민이 공감하는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2021년도 시흥시 예산안 총 규모는 2020년보다 약 6.7% 증가한 1조 974억원으로 기본 방향은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 확대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시흥형 일자리 지원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투자했으며 교육과 청

년 지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 감염병 대응 조직 확대 등 시민 안전 강화 일자리와 첨단 산업이 넘치는 K-골든코스트 구축 지방정부 주도 도시 계획 편린한 교통 지속 확충 미세먼지·약취총력 대응 전 시민 교육 성장 기반 마련 청소년·청년 자립 생태계 구축 공원도시 조성으로 균형 발전 추진

등을 제시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다양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힘찬 재도약을 시작할 숙명적인 시간을 맞이했다"며 "하나의 시흥"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흥시 모두가 하나의 힘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함께 잘사는 시흥을 실현하기 위해 한마음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최정부/기자

# 화성시, 2020 화성습지 국제심포지엄 개최

화성시는 오는 12월 1일 모두누림센터 누림아트홀에서 화성습지의 중요성과 가치를 국내외 전문가 및 시민들에게 알리고 화성습지의 보존 및 지속 방안 등을 모색하는 '2020 화성습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성시와 EAAFP사무국이 공동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화성습지, 뜨거운 지구에 침표를 더하다'라는 주제를 통해 화성습지의 중요성과 가치는 물론 습지가 사람에게 주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 논의한다. 또한 해외의 다양한 습지 이용 사례를 통해 화성습지의 현명한 이용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화성시 홍보대사인 류시현 씨의 사회로 송옥주, 이원욱, 권철승 등 화성시 국회의원들과 원유민 화성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하고 가수 윤도현 씨의 화성습지 홍보대사 위촉식과 축하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며 행사당일 '화성온TV' 또는 '화성습지'를 검색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화성습지의 가치와 의미

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가치인 화성습지 보전에 많은 관심

과 참여로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

### 경기도에선 버스 무정차 걱정 뚝, '시내버스 승차벨' 30일부터 시험운영

승차벨 요청한 버스가 그냥 지나지면 당황하지 말고 '무정차 신고'로 간편 신고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한번쯤 경험해 보는 시내버스 무정차. 이 달부터 경기버스에서는 이러한 불편이 대폭 사라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정류소 무정차 통과를 예방하기 위한 '시내버스 승차벨 서비스'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 오는 11월 30일부터 경기버스정보 앱 스마트 폰 앱을 통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승차벨 서비스'는 탑승객의 하차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인 '하차벨'과는 반대로 정류소에 승객이 기다리고 있음을 해당 노선의 버스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새로운 개념의 대중교통 정보 서비스다. 정류소에 위치한 승객이 경기버스정보 앱을 통해 탑승희망 노선을 검색해 '승차벨'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운전자에게 설치된 단말기에 승차벨이 울려 운전자에게 승객이 대기하고 있음을 알리는 식으로 운영된다. 정보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승차하고자 하는 정류소를 중심으로 반경 30m 이내에서만 작동하는 위치기반 기술을 적용하고 정보 전달 및 버스운전자 인지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탑승하고자 하는 정류소의 직전 정류소 도착 전에 승차벨을 신청한 경우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특히 승차벨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다른 버스를 탑승하고자 하면 기존 승차벨 취소 후 재신청하면 된다. 동시에 경기버스정보 앱에 '무정차 신고' 기능을 신설, 승차벨을 요청한 버스가 무정차 시 이 버튼을 누르면 발생시간, 발생정류소, 노선번호,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수집되도록 했다. 이는 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에 적용, 버스 운전자 및 버스업체 관리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무정차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경기버스정보 앱의 인터페이스를 대폭 개선했다. 저시력자나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고려해 글씨 등의 크기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길찾기, 버스 리뷰 등의 서비스도 함께 추가했다. 오는 12월까지 무정차가 집중 발생하는 시내버스 10개 노선을 대상으로 1차 시험 서비스를, 내년 2월까지 89개 노선을 대상으로 2차 시험 서비스를 시행해 보완·개선을 뒤 3월부터 시내버스 전체 노선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후 시행효과를 판단해 이용자가 많은 민간 버스정보 앱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무정차 불편사항이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이용자가 한적한 외곽 정류소나 이용자가 없는 야간시간에 보다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이번 서비스로 운수업체 스스로 무정차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탑승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승객은 미리 알려주고', '운전자는 미리 알고' 이용하는 스마트한 탑승지원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성용/기자

### 스마트 도시 안양에서 대한민국 미래 교통을 보다.

인양시, 자율주행·첨단교통인프라 구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

안양시가 지난해부터 자율주행 등 첨단교통분야에서 총 4건의 공모사업에 선정, 250여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등 미래 교통혁신의 선두 주자로 나설 전망이다.

2년 연속 국토교통부 주관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44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경기도 주관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경기 First' 공모사업에도 2년 연달아 이름을 올리면서 도비 105억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많은 사업이 위축되는 가운데서도, 스마트시티 사업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시가 예산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가 크다.

2023년까지 첨단 교통분야 대규모 사업들이 연이어 추진되면서 안양형 디지털 뉴딜 또한 탄력받을 전망이다. 이 두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경 안양시는 어떤 모습일까 인공지능 교차로에서는 교통량에 따라 교통신호 주기가 자동으로 바뀌고 긴급차량은 우선 신호를 받아 막힘없이 운행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실시간 교통신호 정보를 제공받아 교차로를 물 흐르듯 통과하게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와 차량 간의 상충 위험을 사전에 영상으로 알려주고 자율주행 시범 구간에서는 인공지능 CCTV의 도로 감시를 통해 무단횡단 등 돌발 상황을 대비한 보행자 경고 및 방 어운전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주차정보시스템은 시 전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현황 조회를 가능하게



해 예약과 결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학교, 교회, 아파트 등 민간주차장으로 확대 및 민간 주차공유 플랫폼 연계로 확산돼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자율주행 기술과 안양시 안전귀가 서비스가 결합된 '경기 밤도깨비 안심셔틀'의 운행 그리고 개별 IoT서비스의 광역 확산 정보를 제공할 '경기IoT거점센터' 건립은 전국 유일의 안양시만의 독자적인 혁신 시스템이다. '경기 밤도깨비 안심셔틀'은 심야시간에 평촌 일대를 시범운행하게 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운행정보 확인, 탑승 예약, 결제, 안전귀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프리미엄 셔틀 서비스다. 안양 범계역 인근에 들어설 '경기IoT거점센터'에서는 첨단교통서비스 전시와 자율주행 서

를 탑승 체험이 가능하다.

특히 이곳의 통합관제실에서는 교통, 방범, 재해, IoT서비스, 자율주행 등 시 전역에 구축되어 있는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 안양시는 스마트시티 미래 교통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전시장에 평촌 일대를 시범운행하게 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운행정보 확인, 탑승 예약, 결제, 안전귀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프리미엄 셔틀 서비스다. 안양 범계역 인근에 들어설 '경기IoT거점센터'에서는 첨단교통서비스 전시와 자율주행 서

최정부/기자

### 시흥시인재양성재단센트럴병원, 디자인본부A 장학기금기탁식개최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은 지난 24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2020년 제 5회 임의이사회와 장학기금 기탁식을 진행했다. 이날 석경의료재단과 디자인본부A에서 기부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2007년에 설립된 의료법인 석경의료재단은 2008년 센트럴병원 개원으로 지역사회 시민의 건강과 보건 향상에 기여해왔다. 개원 13주년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그간에 성원을 지역에 보답하고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재들의 고충을 나누며 학업을 격려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연간 2천만원씩 10년, 총 2억원을 기부했다.

사회와 지속적으로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최고의 종합병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기탁기업 디자인본부A는 2018-2019년도 재단 백년나무클럽회원으로 올해에도 시흥시 꿈나무가 본인 특기에 열정을 가지고 진로를 펼치는데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장학기금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장학금액은 총 2억1백만원이다. 임병택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시흥시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지역 기업의 마음에 감사하다"며 "다변화 하는 시대에 지역의 풍부인재를 양

성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는 보편적 장학제도를 확대 운영 및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은 2004년 시흥시가 출연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해마다 장학금을 지원해 왔으며 2019년에는 264명에게 3억6천8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금까지 총 2,336명에게 약 38억의 소중한 장학금을 지원했다. 재단에서는 올해 상반기 167명의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하반기 모집 및 사업을 통해 선정된 약 280명의 장학생에게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청년학술연구장학금, 지정기탁장학금을 연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최정부/기자



### 구리시, 반려동물 펫티켓 교실 '개그콘서트' 운영

구리시는 오는 11월 30일 구리시청 1층 대강당에서 반려동물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2020 구리시 반려동물 펫티켓 교실, 개그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동물 생명 존중 의식 고취 및 비반려인과의 조화로운 공존 방법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개와 함께 사는 그들의 토크 콘서트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명사 초청 강의 :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설채현 수의사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야기와 반려견 에티켓 교육, 1:1 행동 교정 교육 :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나의 반려견, 반려견 OX 퀴즈 :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반려동물 상식 퀴즈로 구성됐다. 안승남 시장은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에 관한 여러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반려동물과 공존 할 수 있는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교육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시 입장이 제한된다. 행사 당일 구리시 공식 유튜브 해피GTV를 통해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며 방송 종료 후에도 해피GTV에서 다시 볼 수 있다.

김영근/기자



# 구인모 거창군수, '2020 자랑스런 대한국민大賞' 수상

구인모 거창군수가 24일 세종호텔에서 개최된 '2020년 자랑스런 대한국민대상' 시상식에서 '자치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런 대한국민대상'은 대한민국 민운동본부 주관으로 2011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0회째를 맞으며 사회 각계각층에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이는 데 기여한 주역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구인모 군수는 군민과 공감하기 위해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행정 중심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했고 자치분권 시대에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추진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행정 구현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주요성과로는 대한민국 승강기 중심도시로서 세계승강기 허브도시 조성, 거창승강기R&

D센터 고속승강기 구축 등 승강기산업 발굴로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 최고 생태관광지 거창장포원 조성 거창항노화힐링랜드 및 국내 최초 Y자형출렁다리 조성 등 국내 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해 지역의 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군민 건강과 안전, 청정 거창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 추진, 마스크 보급뿐만 아니라 거창형 및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위축된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 경기 회복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이외에도 거창별조타운 조성사업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주민투표로 해결했고 '이동군수실'과 '소통군수실'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소통과 화합의 행정을 구현했다.

송인용기자



#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2027년 개통목표로 추진"

## 설계·공사기간 단축해 당초보다 2년 앞당겨 개통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이 본격 추진된다.

울산시는 한국도로공사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 발주는 울산시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공구를 3개로 나누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동시에 발주됐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에서 가대나들목까지 총 14.8km로 1공구 미호분기점~박제상유적지, 2공구 박제상유적지~범서나들목, 3공구 범서나들목~가대나들목 등이다. 공구를 3개로 분할 발주하면 설계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수 있고 공사기간도 1년 정도 앞당길 수 있어 총 2년이 단축된 2027년 완공이 기대된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은 지난해 1월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해 8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업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올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타당성 평가 용역을 추진했다.

또한 울산시는 지난 4월 27일 울산형 뉴딜 사업 중 '스마트 뉴딜'과 관련된 사업으로 '대규모 도로인프라 사업 조기 추진'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9년 개통 예정인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사업기간을 최대 2년 앞당긴 2027년 개통 목표를 세우고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특히 이번 용역 발주가 설계용역을 3개 공구로 나누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발주됨에 따라 총 2년의 공기 단축이 가능해 졌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시가 추진 중인 외곽순환도로의 일부인 '농소~강동간 도로개설사업'의 경우에도 오는 2027년 개통을 위해 설계용역은 2개 공구, 공사는 4개 공구로 나누어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7월 30일 2공구(호계나들목~강동나들목)부터 설계용역을 착수했고 12월에는 1공구(가대나들목~호계나들목)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가 시행하는 농소~강동 구간의 준공시기인 2027년에 맞추어 고속도로 미호분기점~가대나들목도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공구 분할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은 물론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도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 부산시, '전통시장 우수상품 특별전시회' 개최

## 이제는 발품 대신 '손품'... 내 손안의 전통시장

부산시가 내일부터 12월 6일까지 '제5회 전통시장 우수상품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시회는 부산시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 전국상인연합회가 주최하고 부산시상인연합회가 주관한다. 지난 2016년부터 매년 부산시민공원에서 개최되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추진한다. 부산시는 오는 12월 6일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부산지역 전통시장 우수상품을 소개한다. 시는 이번 특별전시회를 통해 전통시장·상점가 우수상품 및 특산품을 홍보하고 비대면 판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전시회에서는 식품, 농·축·수산물 등 부산의 먹거리와 귀금속, 생활용품 등 우수·특화상품 100선을 선보인다. 다양한 경품 이벤트

와 특가 할인도 진행된다. 특히 매일 오후 2시~4시·6시 총 3회에 걸쳐 유튜브 채널 '부산시 전통시장 우수상품' 유튜브 특별전을 통해 생방송도 진행된다. 실시간 상품 구매뿐만 아니라 전문 MC의 진행으로 채팅과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판촉 활동을 펼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전통시장이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온라인 판로를 확대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 등 관련 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궁영기자



# 부산시,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에코열차 운행

## 낙동강하구 겨울 철새들의 아름다운 비상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부산교통공사와 함께 내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도시철도 1호선 1량을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에코열차'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에코열차는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생태관광 램핑 홍보로 매일 6회 정도 운행되며 낙동강하구 겨울 철새 대표 종인 큰고니를 비롯한 청둥오리, 큰기러기 등 겨울 철새와 가시연꽃 해당화 등 하구 습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동·식물들로 꾸며졌다.

특히 열차 내 포토존은 우리가 겨울 철새가 되어 힘차게 날아올라 희망의 봄을 맞이하는 낙동강하구를 표현한 것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극복 의지를 담고 있다.

에코열차와 함께 도시철도 하단역은 계단 벽면 2곳과 계단 1곳에 철새들이 비상하는 모습을 담은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테마역사'로 조

성됐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간 에코열차 운행을 기념하는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한다.

누구나 낙동강하구에코센터 홈페이지의 '참여마당'나 도시작가'와 사회관계망서비스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200명에게는 지하철 승차권 등 소정의 기념품이 증정된다.

이영에 부산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은 "이번 에코열차 운행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낙동강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립자연생물 분야 전문과학관'으로서 겨울 철새 등 다양한 생물

과 생태를 느낄 수 있는 각종 체험 및 교육을 운영하고 낙동강하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등 우리 센터가 국내외 최고의 생태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남궁영기자

#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목요장터 개최

## 유튜브 실시간 재방송을 통해 온라인 홈쇼핑 방송 송출

경상남도가 우리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온라인 목요장터를 개최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선별된 제품들을 유튜브를 통해 홈쇼핑 형식으로 온라인에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사업으로 경남도 내에서 처음 기획하는 사업이다.

온라인 목요장터는 지난 11월 19일 방송을 시작으로 12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4종을 유튜브 '경남가치사마켓'에서 실시간 재방송을 통해 판매한다.

이어 11월 26일에는 삼푸, 박하차, 절임배추, 드림백 커피 등 협동조합 제품 4종을, 12월 3일에는 비트차,

빈장·고추장, 단감즙, 도자기 등 마을기업 제품 4종을 판매할 예정이다. 방송은 경남 'mbc 정오의 희망곡' 진행자인 조복현 아나운서의 사회로 한 시간 동안 진행되며 각 기업 대표가 판매 상품을 소개하고 온라인 질의·응답을 통해 시청자들과 직접 소통한다. 또한 방송 상품은 제공되는 구매 링크를 통해 바로 구매할 수 있다. 장재혁 도 사회적경제추진단장은 "유튜브를 통해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감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온라인 목요장터와 같은 다양한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인용기자



# 통영시 혁신사례, 정부혁신 박람회를 통해 전국에 소개된다



통영시가 추진하는 '섬마을로 찾아가는 드론배달'이 11월 24일부터 오는 12월 3일까지 열리는 '2020 정부혁신 박람회'를 통해 전국으로 소개

된다. 2020 정부혁신 박람회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공공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

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최되며 사회적 가치 디지털 서비스 참여와 협력 지역혁신 등 4개 분야별 55개 온라인 전시관이 문을 연다. 이번 박람회에서 경남도는 '디지털 혁신 ABCD&5G'라는 정책명으로 지역혁신 주제에 참가해 인공지능 통합돌봄 서비스, 빅데이터 활용 주요 농산물 생산조정,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 섬마을로 찾아가는 드론배달, 디지털 트윈 기반 안전관리 등 총 5개의 디지털 혁신사례를 선보인다. 이들 사례 중 통영시에서 추진한 '섬마을로 찾아가는 드론배달'은 경남도내 유일한 시·군 사례이다.

통영시는 570여개의 도서로 이루어진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주

민과 외부인들의 이동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섬 거주민의 약 40.8%가 고령자로 이루어져 충분한 행정·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지난 4월부터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한 '섬 마을로 찾아가는 드론배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총 30개소의 드론 배달망을 구축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올해는 온라인으로 전면 실시되는 만큼 통영시 혁신사례는 물론 전국의 혁신 성과를 볼 수 있는 정부혁신 박람회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 2020 구미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 문화도시와 예술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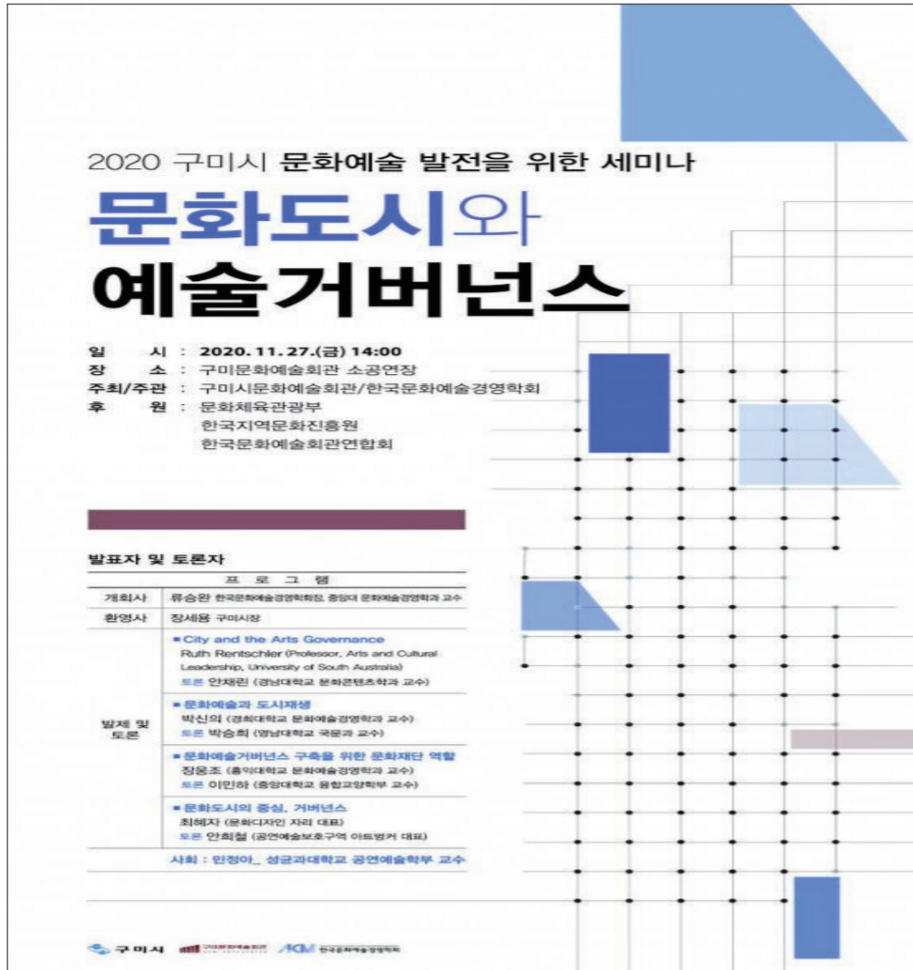
구미시와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는 구미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오는 27일 구미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개관 30주년을 기념해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와 함께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실천'의 주제로 진행한 포럼에 이어 두 번째 행사로서 '문화도시와 예술거버넌스' 주제로 개최된다.

첫 시작은 호주의 디킨대학교 루스 렌츠러 교수가 "City and the Arts Governance" 관련해 현지 온라인을 통한 국외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박신의 교수가 "문화예술과 도시재생"을 발표하며 장웅조 교수의 "문화예술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최혜자 대표의 "문화도시 중심, 거버넌스"에 대해 발표가 이어진다.

이 외에도 안채린 교수, 박승희 교수, 이민하 교수, 안희철 대표의 토론과 질문이 민정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가을의 절정을 달리는 아름다운 계절에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문화생활 등 우리 일상의 큰 변화와 어려움이 많았지만, 우리 구미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학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문화 진흥, 지역문화예술의 창작활동, 그리고 지역문화재단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을 한자



리에서 함께 발전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추진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과 문화 향유를 위한 문화예술 정책을 적극 펼쳐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세미나는 27일 구미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오후 2시부터 코로나 19 수도관발 3차 감염 확산에 따라

객석 거리두기와 제한된 인원으로 참가하며 공연장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된다. 학계 전문가, 문화예술 기관, 언론인, 공무원, 문화예술 활동가, 시민 등이 참여하며 구미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향후 방송될 예정이다.

정몽호/기자

# 대구시, '2020 대구 마을주간' 개최

대구시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올해 마을공동체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간의 활동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20 대구 마을주간' 행사를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유례없는 코로나19로 고통받았던 올 한 해를 되새기며 비록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였지만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마을에서 손 맞잡고 기쁨으로 함께 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해 진행한다. 먼저, 26일에는 한 해 동안 마을공동체 활동을 했던 팀들의 활동 모습들을 공유하는 '사례 공유회'가 개막식 식전 행사로 진행된다. 올 한 해 우수 마을 공동체 활동 사례들을 별도로 선정해 발표 할 예정이다. 대구마을센터 유튜브 채널로 중계되는 영상을 보면서 발표되는 마을공동체에 실시간 문자 투표할 수 있으며 표를 많이 받은 팀에게는 별도의 상이 주어진다. 개막식에서는 대구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마을공동체들을 재조명하

기 위해 동네 현장에서 알게 모르게 이웃과의 관계를 넓히는 작업들을 해왔던 숨은 마을공동체들을 발굴해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시상상을 마련한다. 또한, 전국 최초로 마을공동체만들기 활동 체험수기를 전국 공모해 총 81편에 대한 심사 결과 선정된 6편과 2020 대구 마을공동체 어워드 공모에 선정된 10개 공동체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유공 공무원 8명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뤄진다. 특히 공동체 활동의 체험담을 모아 시상하는 '마을공동체 체험수기 전국 공모전' 수상작 6편에 대한 샌드아트 발표회와 마을공동체들의 문화 활동을 담은 공연 영상도 상영될 예정이다.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기획 컨퍼런스'와 '작은 포럼'은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최근 화제가 되는 주제들을 다룬다. '마을공동체와 자치', '마을방송국', '그린뉴딜과 마을일자리', '대구 지역 마을공동체 우수 사례' 등 마을공동체의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마치

막 날인 28일에는 마을공동체의 현재를 보여주는 '마을미디어 공모전' 상영 및 시상 행사가 열린다. 앞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을을 기반으로 극복·성장한 이야기, 마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웃들의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로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미디어 작품 공모를 진행했으며 접수된 51편의 작품 가운데 선정된 13편의 우수 작품을 상영하고 시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유튜브에서 '대구마을센터'를 검색해 해당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시청 중간마다 퀴즈나 투표를 통해 행사에 바로 참여할 수 있다. 심재균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로 우리 지역의 피해가 가장 많았지만 놀라운 시민정신으로 이를 극복했으며 그 가운데 마을공동체도 많은 역할을 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류석/대기자

# '경북 사회적경제 온라인 행복일자리 박람회' 개최

###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라이브쇼 진행으로 청년 취직의 장 마련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비접촉의 언택트 시대에 발맞추어 경북도는 온라인을 통해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인력에 대해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0 경북 사회적경제 온라인 행복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2020 경북 사회적경제 온라인 행복일자리 박람회'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최초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취업박람회이다. '집에서 찾은 내일 경북이 책임질게'라는 슬로건으로 행복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12월 6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행복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을 위해 박람회 참가기업의 기업정보, 채용정보 등을 확인하고 상담 및 채용면접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 채용관', 참가기업의 홍보영상과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우수사례를 담은 '홍보관', 그리고 '이벤트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4일과 25일에는 이번 행복일자리 박람회의 하이라이트인 온라인 라이브쇼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청년이 청년에게 묻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24일에는 하대성 경제부지사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사회적경제? 궁금해요

부지사님', 미디어퍼포먼스팀 '생동감 크루'의 공연, 웹툰작가 '마인드C'의 강연, 개그우먼 흥현희의 토크콘서트 '뻘뻘한 사회적경제' 등이 진행된다. '청년이 사회적경제에게 묻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25일에는 사회적기업인 안동시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 '공부의 신' 강성태의 사회적경제 강연, 인기가수 헤이즈의 공연, 사회적경제를 널리 알리고 있는 알베르토 몬디, 다니엘 린데만, 럭키 3인방의 강연이 진행된다.

행복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는 박람회가 종료되면 전국 최초로 이용자 중심의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온라인 통합 플랫폼으로 변경되어 사회적경제기업 및 구직청년에게 다양한 정보제공과 구인·구직의 창구로 활용된다. 또 스마트러닝 센터를 개설해 청년들이 코로나19 상황에도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언택트 시대에 최적화된 온라인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은 2018년 7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 중인 사업으로 역량강화교육, 청년 네트워킹 조성 등 좋은 일자리 제공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 경북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업한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에게 월 최대 23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550여명의 청년이 참여 중이다.

정몽호/기자



# 영양군, '사랑의 헌혈운동 릴레이' 전개

영양군은 11월 25일 영양군청 전정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공직자 및 기관단체 임직원, 지역주민이 참여해 3회 차 '사랑의 헌혈운동 릴레이'를 펼친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퍼져 나감에 따른 학교 및 기관 단체헌혈 감소, 지자체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한 개인 헌혈자 또한 감소함에 따라 의료기관마다 안정적인 혈액 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혈액 보유량이 급감한 상황에 혈액수급에 도움이 되고자 영양군에서 이번 헌혈운동을 마련해 군청,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영양경찰서, 영양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들이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한다.

헌혈은 만16세 이상 69세 미만이며 체중이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이면 가능하며 참여자는 당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다만, 최근 1개월 이내 국외여행자, 전날 과음자 등은 헌혈이 제한될 수 있다.

영양군은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며 내 가족과 이웃

을 위하고 나아가 우리 모두를 위한 뜨거운 사랑의 실천이다"며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기관단체 직원과 일반주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꾸준히 헌혈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감동양주**  
신성장·새 지평

**함께하는 감동 양주**

**NEW & NEW**

새로운 도약, 신성장 활력도시

Yangju 양주시







### 2020년 '이천시 문화상' 수상자 선정

이천시는 2020년 이천시 문화상 수상자로 교육부 신평원씨, 문화예술부 이춘희씨, 체육부 김경만씨, 지역사회봉사부 한만길씨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향토문화의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인사를 널리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1990년부터 매년 문화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교육부문의 신평원씨는 현재 증포 초등학교 교장으로 1993년부터 이천시에서 근무하며 약 28년간 이천시 교육 발전을 위해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 이천 교육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 이천교육지원청 컨설팅장학 컨설턴트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문화예술부문의 이춘희씨는 이천 백사산수유영농조합 법인 대표를 역임하고 있으며 산수유 마을의 홍보를 위해 마을 주변의 꽃을 재료로 하는 압화 작품 활동과 사단법인 한국예총이천시지회 산하 한국문인협회 이천시지부 제10대 회장을 역임하며 이천시 관내 문학 인구의 저변 확대 및 시민과 함께 즐기는 문예 활동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체육부문의 김경만씨는 이천체육

회 부회장으로 과거 이천시 씨름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대한씨름협회 주관의 '전국장사 씨름대회'를 이천 시에서 개최 함으로써 시를 외부에 알리고 이천시 씨름협회의 발전에 발판을 마련하는 등 이천시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지역사회봉사부문의 한만길씨는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과거 장전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며 주민자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빨래방 운영을 하며 어려운 시민을 위한 무료 빨래 지원, 저소득 가정을 위한 지원 등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상욱기자



### 안정옥 음성군 세정팀장, 제24회 민원봉사대상 본상 시상금 전액 200만원 음성장학회 장학금으로 쾌척

안정옥 음성군 세정과 세정팀장이 제24회 민원봉사대상 본상 수상으로 받게 된 시상금 200만원을 음성장학회에 기탁했다.

안정옥 세정팀장은 충북 도내 최초로 기존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실버 맞춤형 납세고지서로 새롭게 디자인해 노인층 납세편의를 증진시켰으며 음성군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에 기여할 신설 기업을 직접 찾아가 지방세 민원과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기업 친화적 세무행정을 추진하는 등 군민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펼쳤다.

이러한 창의적이고 군민친화적인 행정추진 실적을 인정받아 제24회 민원봉사대상 본상을 수상하게 됐다.안정옥 세정팀장은 "배우자도 어려웠던 고교시절 음성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자녀도 올해 음성 장학회에서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꼭 보답하리라 마음먹고 있었다"며 "이번에 민원봉사대상 수상의 영예와 함께 장학금 기탁을 실천하게 되어 더욱 기쁘다"고 말해 장학사업 선순환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줬다.

최만식기자



### 조병옥 음성군수 '2020 자랑스런 대한국민대상' 수상



조병옥 음성군수가 '2020년 자랑스런 대한국민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대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운동본부 주관해 올해 10회를 맞이하는 '자랑스런 대한국민대상'은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스포츠, 기업경영, 자치행정 등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국민에게 대한국민운동본부에서 수여하는 상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강력한 내부혁신 추진으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2등급',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등 군민의 공감과 신뢰를 확보했다.또한, 균형발전 정책

제도화, 5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전략 수립 등 균형발전 정책 기틀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 자랑스런 대한국민대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관내 코로나19 상황이 여의치 않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해 지난 24일 세종호텔에서 개최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조병옥 군수는 "코로나19로 경제를 비롯한 생활 전체가 어려운 시기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선다"며 "조속히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균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 정하영 김포시장, 경기환경대상 경기도지사상 수상

"수도권 제일의 쾌적한 도시, 환경·에너지 분야 혁신도시 되도록 최선"

정하영 김포시장이 제25회 경기환경대상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인천일보사가 주최하고 경기도가 후원하는 경기환경대상은 맑고 푸른 경기도를 건설하기 위해 기업과 도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정착시키고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각계각층의 공로자를 발굴해 격려하는 상이다.정 시장은 24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디지털엔지니어링 세미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포시의 초막골생태공원과 함께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다.사)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와 ㈜디에스클린은 인천일보상을, 팽택시청과 광교1동 주민자치회는 특별상을 받았다.

정하영 시장은 저공해 차량의 지속적 보급으로 김포시가 경기도 내

친환경자동차 보급률 1위를 달성하도록 하고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해 중소기업의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등 환경 최우선 정책을 펴고 있다.또한 미세먼지 저감 연구용역 추진, 자원화센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최우수' 사업장 선정, 대기오염 배출시설 영세사업장 지원 확대 등 대기질 관리 정책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환경개선 데스크포스팅 설치·운영, 환경군 신설 등 환경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유치에 성공한 점도 반영됐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수상소감에서 "코로나19가 환경과 에너지 4차 산업 시대의 전환을 더욱 앞당기고 있다"며 "김포시가 대한민국의 환경의식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고 수도권 제일의 쾌적한 도시,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혁신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근기자



## 양해남 두 번째 사진시집 '바람을 찍는 법' 출간

고향 충남 금산 배경, 향토색 짙은 이야기 담아

'바람을 찍는 법', 이 책은 줄곧 충남 금산에서 활동해 오고 있는 시인이며 사진가인 양해남의 두 번째 사진시집이다.흔히 시에 비교되는 사진을 넣고 다시 시를 썼으니 이미지와 의미가 이 작은 책에 가득하다.

'세마지에 머문 시간' '인생은 말이지' '바람을 찍는 법' 등 신작시 94편과 그의 생활환경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서 촬영한 컬러·흑백 사진 94매를 수록했다.5부로 구성된 이 책은 아무래도 아버지들에게 바치려는 듯 1부는 "이 땅을 견뎌낼 수 있도록, 온전히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된 사람 아버지"에게 전하는 감사의 말로 시작하고 있다.

거름바지계를 엮는 아버지, 인삼밭에서 일하는 아버지, 트랙터를 모는 아버지 등 논밭과 장터에서 일하고 쉬는 아버지의 모습을 담고 있다.

2부는 과수원과 일터 등지에서 만난 어머니의 모습이다.밤금 짜낸 걸 쪽쪽 참기름을 병에 담은 장면에서 시인은 "참 고소한 소리"를 듣는다.

3부는 아이들과 시간이 주체다.자연에서 성장하는 아이들과 세월 따라 가버린 사람들에게 대한 그리움이 시와 사진에 배어 있다.4부는 마을과 길에서 만난 분주히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수입과 관계없이 자기 일에 열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시인은 '행복 셔터'를 누른다.5부는 이 책의 주제가 함축된 풍경이다.당산나무와 바닷가, 오래된 기와 집과 "굽었다 치면 굽은 대로/ 휘어져 버렸다면 휘어진 대로/ 산비탈 하나도 거스르지 않고/ 차곡차곡 쌓은 순리의 곧은 선" 인삼밭이 설치미술처럼 자리하고 있다.

시인은 굳이 먼 곳에서 테마를 찾으려 들지 않는다.



마을과 들길을 걷다가 만난 사람들이 모두 그의 사진과 시의 재료다. 그의 시어에는 농촌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과 노동이 배어 있고 충청도 말투가 묻어난다.

사진을 말이라고도 하는데 사진에서도 그것이 짙게 나타난다.그의 시나 사진은 모두 당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해 주고 있다.

고정화기자

# 사용이 편리한

# 「나주사랑카드」 상품권 출시



- ▶ 발행시기 : '20.9.1.부터
- ▶ 카드신청 - 한국조폐공사 앱(chak)
- ▶ 충전한도 : 월 70만원
- ▶ 좋은점 - 사용자에게 10% 할인
-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 발행종류 : 충전식카드
- 관내 농협 방문
-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직장인 소득공제 30%
- ※ 스마트폰, 신분증, 계좌번호
- 휴대폰에서 충전가능 등

☎ 339-8822

### 서울시, 북서울꿈의숲으로 집콕 음악소풍... '뮤직 테라피' 온라인공연

실력가 가수 '알리'와 명품 밴드 '두번째달'이 음악으로 전하는 온라인 힐링공연 개최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울감을 앓고 있는 시민들과 어렵게 수능시험을 끝마친 수험생들을 위해 오는 12월 3일 저녁 7시 '서울의 산과공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공연 '북서울꿈의숲 음악소풍 '뮤직테라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서울꿈의숲 음악소풍'은 당초 지난해 개원 10주년을 맞이한 북서울꿈의숲 공원 일대에서 올 봄과 가을에 오프라인 행사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시민들에게 영상으로나마 뜻깊은 시간을 제공하고자 온라인 행사로 전환해 올해 처음 개최하게 됐다.

온라인으로 진행 될 '북서울꿈의숲 음악소풍 '뮤직테라피'는 최고의 가창력으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실력과 가수 '알리'와 다양한 장르와의 작업을 통해 독특하고 차별화된 무대를 선보이며 눈과 귀를 사로잡는 밴드 '두번째달'이 참여해 시민들과 수험생들에게 위로와 힐링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악인 이혜인, 소프라노 한송이, 테너 이현, 베이스 유준상으

로 이루어진 팝페라 그룹 '팬텀'과 함께 가을로 물들었던 북서울꿈의숲을 배경으로 서정적인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북서울꿈의숲 공원 내 창포원 일대에서는 '서울의 산과공원, 그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오프라인 전시도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원사진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만끽할 수 없었던 공원의 풍경과 시민이 채워줬던 소중한 공원의 일상을 기록한 사진으로 마련됐다. 이번 전시는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활동 중인 공원사진사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촬영한 서울 공원의 일상과 계절의 풍경을 담은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의 공원, 그 일상으로의 초대'는 12월 6일까지 총 125점이 전시되며 다음 카카오편리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관람 할 수 있다.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한정훈 소장은 "요즘처럼 문화생활을 즐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온라인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쳐있는 시민들과 수능을 끝마친 수험생들이 음악으로 채워진 무대를 보며 지치고 힘든 마음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오누이" 비대면 온라인 공연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은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25일까지 문화가 있는 날 및 경기도 문화의 날을 맞아 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음악극 "오누이" 온라인 공연을 방영한다. 오누이는 양주시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인 극단 '즐거운사람들' 작품으로 '해님달님', '바리공주' 전래동화를 각색하고 창작곡과 아동 문학가 윤석중의 서정적인 노랫말이 담긴 동요가 어우러진 창작극이다. 이번 공연은 부모에게 의존적인 어린이들이 모든 상황에서 스스로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교훈적인 메시지를 담았다. 또한, 극중 오누이가 엄마를 기다리는 동안 서로를 돌보는 장면을 통해 가족애를 느끼고 다양한 골목 놀이 장면으로 부모와 아이들이 공연을 즐기며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재 공단 유튜브 채널에서는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위해 '케이맨 드림콘서트' 등 공연도 무료로 방영하고 있다.

김영권기자



### 차세대 명창들이 펼치는 "판소리 다섯마당" 마지막 무대



### 깨끗하고 단단한 음식을 가진 전통 소리꾼 김보림의 '적벽가'

대전시립연정국악원과 TJB대전방송은 2020전통시리즈 "젊은 소리꾼 초청, 판소리 다섯 마당"을 공동주최로 무대에 올린다. 그 마지막 무대로 김보림의 '적벽가' 공연을 오는 11월 26일 오후 7시 30분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작은마당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객석 띄어 앉기"로 개최한다. 판소리 '적벽가'는 중국의 [삼국지연의]의 내용 중 관우가 화용도에서 포위된 조조를 죽이지 않고 너그러운 길을 터주어 달아나게 한 '적벽대전'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소리이다. '적벽가'는 깨끗하고 웅장한 우주 위주의 소리가 때문에 동편제 계열의 명창들이 즐겨 불렀지만,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계면 위주의 소리가 대중들에게 더 사랑을 받았다. 젊은 소리꾼 김보림은 다섯 살에 소릿길에 입문, 故 박동진, 김양숙 안숙선, 김수연, 이난초 등 당대 최고의 명창들을 스승으로 삼고 배움을 이어가는 중이다. 서울대학교 국악과 졸업 이후 '제

고정화기자

### 인천의 문화적 자산에 다양한 색채와 이야기를 더하다

### 인천시립무용단 새로운 기획 '뉴브랜딩, 인천'

인천시립무용단이 새로운 기획 "뉴브랜딩, 인천 월정명"으로 오는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인천시립무용단 네이버TV와 유튜브 채널에서 관객들과 만나고 밝혔다. '뉴브랜딩, 인천'은 인천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자산에 다양한 색채와 이야기를 더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기획이다. 개항, 근대, 공항, 국제도시, 인천을 표현하는 수많은 키워드 속 인천 고유의 문화를 캐치해 현대적 이미지와 서사를 부여해 새로운 브랜드로 재정립해 관객과 시민에게 선사한다. 인천시립무용단이 선택한 '나나니춤'은 인천 지방 무형문화재 제3호인 '나나니타령'에 맞추어 주는 사람 향기가 가득한 춤으로 이번 프로젝트 '뉴 브랜딩, 인천'의 시작에 가장 걸맞은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월정명'은 인천의 향토춤인 나나니춤을 중심으로 그 기저에 깔린 여성의 삶 속 애환과 극복의 힘, 서로를 향한 강한 연대를 그린 작품이다. 춤을 전개하는 방식에 있어 우리 춤이 가진 깊은 멋과 매력을 전하는데 방점을 두고 나나니춤을 비롯해 우리나라 전역에 퍼져있는 집단 향토춤 동작을 연구해 독특한 지역적 색채를 세련된 현대적 이미지로 재탄생시키고자 했다. 지난 8월 코로나로 아쉽게 취소된 '달빛나나니'를 확장·발전시킨 형식의 이번 작품은 여자의 전 생애에 걸친 흐름을 한 달을 주기로 형태를 변화하는 달에 비추어, 여성의 삶 속 녹진한 '한'과 생의 기록을 춤으로 표현했다. 새로 달이 떠서 초승달, 보름달, 하현

달, 그믐달까지를 각 장의 이름으로 삼아 젊은 여자들의 군무, 만삭 여인네들의 수다와 같은 춤, 나이든 여자들의 위로가 담긴 춤 등 흐르는 시간과 삶을 춤에 담았다. 고기잡이 떠난 남정네들의 무사귀환과 만선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기원이 담긴 나나니춤은 바다와 함께 삶을 일궈 온 여인들의 한과 흥을 해석적인 몸짓과 사실적인 동작으로 표현한다. 나나니타령 속에서 남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떠났다가 남겨진 여자들은 힘든 삶을 서로에게 기대어 버텨낸다. 바닷가 고단한 삶은 웃음으로 덮어 오히려 아니 놀고 뭍하느라 내려 서로에게 위안을 건넨다. 작품의 제목인 '월정명'은 밝은 달 아래서 이루어지는 뱃놀이의 흥취를 담아 삶을 노래한 작자미상의 시조이다. 달 아래 나나니춤을 추는 여자들의 한과 흥이야말로 '월정명하니', '아니 놀고 뭍할 소냐'라는 노랫말로 귀결될 만하다. 안무가 장지윤은 "무용수로서 무시할 수만은 없는 '나이'에 대한 인지를 시작으로 삶을 돌아보며 결국 결이 있는 사람들의 따뜻함만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여자의 삶 속 한이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데서 작품을 시작했다. 그 공명적 정서에서 모든 여자를 떠올린다. 누구나 옆에는 어느 여자가 있듯이, 여자들이 모이면 눈물과 웃음이 있듯이."고 말하며 이번 안무 소감을 전했다. 항상 서로의 위로를 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연대, 그 깊은 이해와 포용을 담아낸 '뉴브랜딩, 인천 - 월정명(月正明)'은 인천문화예술회관 채널에서도 관람 가능하다. 김준남기자

### 퓨전창작소리극 '난리났네 춘향뎐'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획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오는 28일 저녁 7시 30분 옹부홀에서는 판소리 춘향전을 바탕으로 현대와 고전을 결합시켜 만든 '퓨전창작 소리극 난리났네 춘향뎐'을 진행한다. 고전과 현대를 오가는 창작 소리극으로 눈과 귀가 즐거운 다양한 패턴의 음악과 전통춤이 함께하며 가무악과 극, 전통과 퓨전이 함께 어우러져 흥미진진한 공연이다. 한국 서민문학의 대표적 작품이자

최고의 로맨스 소설로 인정받는 춘향전을 각색하고 전통과 퓨전을 접목시켜 춘향의 연행을 아주 코믹하게 나타내고 다른 등장인물들의 행동과 대사 또한 유쾌하게 표현해 시종일관 관객과 출연진이 신명나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퓨전 창작 소리극 난리났네 춘향뎐'을 제작한 소리문화예술단은 아름다운 우리 소리, 전통춤, 국악가요 등의 특성을 부각해 전통예술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대중들에게 알리고자 노력하는 단체이다. 김영호기자



### 광주시, 온택트 콘서트 으랏차차 문화센터 공연 진행

광주시와 컬처임팩트는 온라인으로 만나는 '온택트 콘서트' 으랏차차 문화센터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온라인 화상콘서트로 진행할 예정이다. 콘서트는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한 관객들과 공연자들이 화상회의 앱 ZOOM을 활용해 소통하며 라이브로 공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연은 현대와 전통이 만나 이색적인 퓨전전통 종합예술 무대와 청소년이 좋아하는 K-POP 댄스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이번 무대를 위해 전문가와 함께 12주간 온라인으로 춤을 배워온 신현중학교 학생들의 발표공연을 영상콘텐츠로 만날 수 있다. 신현중 학생들은 으랏차차 문화센터 공연 준비를 위해 동아리를 창단한 후 지난 7월, 2020 광주시 청소년 종합예술제 댄스부문에 참가해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집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을 해야만 참가할 수 있다"며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성열기자



# 서울시, 27만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중국 위챗페이 결제된다

중 관광객·유학생·노동자, 별도 카드발급이나 환전없이 손쉬운 소비 가능해 지역소비 진작

앞으로 서울시내 27만개 제로페이 가맹점 어디에서나 중국의 대표적 인 모바일결제 '위챗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제로페이와 위챗페이 간 QR코드 연동해 별도의 앱을 깔지 않고도 손쉽게 결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서비스 개시일은 28일이다. '위챗페이'는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가 운영하는 대표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중국 내 월 순수사용자가 8억 명이 넘는 보편적 결제 서비스다.

현재 전 세계 49개국에서 사용 가능하다.

특히 제로페이-위챗페이가 연동될 경우 위챗페이가 소상공인 발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수수료 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기존 수수료 대비 인하된 수수료를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가맹점은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준다.

또한 한국방문 해외관광객 3명 중

1명에 이르는 중국인들이 본국에서 익숙한 위챗페이를 사용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소비로 이어 질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관광객 1,750만명 중 34.4%인 602만명이 중국인 관광객으로 1인 평균 1,887달러, 총 12조원이 넘는 소비를 했다. 아울러 서울 거주 수많은 중국 유학생 및 노동자들도 별도의 카드발급이나 현금인출, 환전 없이 위챗페이만으로 손쉽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지역 내 소비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챗페이도 QR 통합결제 가능한 해외가맹점 27만개를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게 돼 가맹점 모집에 따른 비용과 시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이번 제로페이-위챗페이 연동이 국내 지자체 최초로 국가간 모바일간편 결제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을 넘어 크로스 보더 결제 플랫폼 위챗페이의 QR이 아닌 제로페이의 QR를 활용하게 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위챗페이 연동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아세안 국가의 대표 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도 제로페이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위챗페이, 한국 간편결제진흥원은 23일 서면협약을 체결하고 가맹점관리부터 홍보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와 위챗페이는 지난해 10월부터 결제시스템 개발을 비롯해 소상공인 가맹점 특별 수수료 구간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현재 협약기관들은 중국인들이 많이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명동, 신촌을 비롯해 이화여대, 홍익대, 건국대, 한양대 등 대학교 인근의 제로페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향후 코로나19 진정 및 종식 후 관광객들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시기에는 제로페이-위챗 결제할인, 쿠폰 증정 이벤트 등도 추진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은 "제로페이-위챗페이의 연동은 중국 유학생과 노동자, 관광객에게는 편리한 소비를,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 감소 및 매출증대라는 실질적인 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제로페이의 결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우리가 바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

## 2020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연합 해커톤 개최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3개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2020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연합 해커톤'을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우수 인재의 조기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는 현재 3개교가 운영 중이며 1개교가 '21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실습장비 구매, 실습실 구축, 교육 과정 개발 및 교원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0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연합 해커톤'은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3개교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과 안전'에 관련된 20개 주제를 도출하고 이를 집단지성을 활용해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소프트웨어 능력 향상과 더불어 타 학교 학생들과 교류하고 협업하며 공동

체 역량과 책임의식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해커톤에서 주목받은 작품으로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운 일반인과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해 해외 관광 명소의 소리를 제공하는 '소리로 하는 여행', 온라인 수업 중에 학생들의 눈 깜빡임과 동공 시선을 감지 후 수업집중도를 점수화해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웨이컴업' 등이 있었다.

본 행사는 코로나19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 하에 비대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진행됐다. 매일 3회 이상 체온 확인, 손소독제와 마스크 필수 사용, 수시 소독·환기, 공간 분산 후 학생들 간격 최대한 확보 등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진행됐다. 국내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 전문가들이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자문 및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학생들과 소통하고 작품을 평가했으며 우수 팀에게는 대표영양의 상을 시상했다.

시상식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은 국내 굴지의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활약하고 있다. 또한 재학생들은 각종 소프트웨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는 '제16회 시스코

네트워킹 아카데미 경진대회 2020'에서 대상,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는 '포스코 ICT AI챌린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대구소프트웨어고는 '2021년 중국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 모바일 앱 개발 직종에서 국가대표와 국가대표 후보 선수를 배출했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이번 해커톤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능력은 물론 타학교 학생들과의 협업을 통해 실무능력을 키우는 데에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최만식/기자



# 새만금 사업 속도낸다...기반시설·투자유치 본격화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2.1조원 규모 SK 투자협약 체결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24일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 및 SK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성과를 시작으로 새만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은 새만금 동서도로 시점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손순열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북 지역 국회의원, 건설사 관계자 등 총 50여명이 참석해 건설 관계자 표창 수여 및 동서도로 시범주행 등을 진행했다.

개통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2015년 11월 착공해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를 잇는 연장 16.5km 및 4차로로 건설된 새만금의 핵심 교통축으로 물류수송 등을 위한 중요 교통관문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방조제 도로를 제외하고 최

초로 개통되는 간선도로로서 호남·영남·수도권 등에서 새만금까지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투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서도로는 개통식 다음날인 11월 25일 낮 12시부터 개통될 예정이다. '창업클러스터 구축 및 데이터센터 유치 산업투자형 발전사업'의 사업자로 SK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새만금개발청 등과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및 신영대 의원 등이 참석했다. SK컨소시엄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상태양광 사업권을 인센티브로 받고 새만금 산단에 2조 1천억원 규모의 창업클러스터 및 데이터센터 구축, 투자유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K 컨소시엄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법정부적인 지원 또한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SK 그룹은 국내 최초로 한국 RE100 위원회에 가입을 신청하는 등 재생에너지 활용에 관심이 큰 만큼, 새만금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성윤/기자

# 해남군, 산림청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 선정

국비 25억원 투입, 고소득 산림작목 5ha 조성

해남군이 산림청 주관 2021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산림신품종 재배단지를 조성한 후 시군에서 결성한 사회적 협동조합에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2개소씩 총 8개소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해남군과 세종시가 선정됐다. 사업비 25억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해남군은 내년부터 배지 표고버섯, 두릅·읍나루 등 고부가가치 산림신품종의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등 산림분야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예정지는 현산면 구리리 일원 5ha 국유림으로 2022년까지 관리동, 재배온실, 작업동, 포지 등을 조성한다. 특히 이번 사업의 중심이 되는 임업인, 지역주민 등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 생산·판매 등 운



영 권한을 부여하게 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과 임업인 소득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산림신품종 재배단지가 해남 임업 저변 확대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

다"며 "지역 내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이 상상하는 성공적인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영욱/기자



